

광주~완도 고속도로 연장개설

서광주역IC~동나주IC 17km 4,500억 투입 추가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중 당초 계획에서 제외된 '동나주IC~서광주역 IC' 구간의 연장 개설이 확정됐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동나주 나들목에서 서광주역 나들목까지 17km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를 광주시내 구간을 빼 채 나주시 금천면 동나주에서 완도 입구인 해남군 북평면 남해남나들목까지 70.4km를 4차로로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결정에 따라 동나주~서광주역 구간이 현재 진행 중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기본설계와 같이 추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전 구간 거리는 87.4km로 늘었으며 사업비도 당초 1조6천26억원에서 서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이번에 관련됐다.

시는 광주시 관계자는 "동나주~서광주역 간 구간은 늦어도 2009년 착공해 혁신 도시 건설에 맞춰 2012년 내에 완공할 예정이며, 광주~완도 고속도로 전 구간의 완공은 2017년 말이다"고 밝혔다. /체육증기자 chae@kwangju.co.kr



대학생 95%

'맞벌이' 원한다

대학생 대다수가 장래 결혼 후 맞벌이를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대학생 포털 캠퍼스몬은 최근 자사 회원 중 장래에 결혼을 계획하는 대학생 882명에게 '결혼 후 맞벌이를 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 95.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5·18주모관' 개관

5월 영령의 날을 기리는 '5·18주모관' 개관식이 14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정복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이홍길 5·18기념재단 이사장,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민만족

- 김종우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폴란드 실사

BIE실사단, 브로츠와프 방문

우리나라와 함께 2012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에 뛰어든 폴란드(브로츠와프)에 대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현지 실사가 14일 시작됐다.

5일간 실시되는 이번 폴란드 실사는 한국, 모로코와 마찬가지로 7명의 실사단이 폴란드 정부와 유치 후보 도시인 브로츠와프를 방문, 박람회 주제 및 개최 역량 등 BIE에서 요구한 14개 사항에 대해 실사를 벌이게 된다.

폴란드 남서부 실레지아 지방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폴란드의 공업 중심지로 기계, 전기기구, 식품, 화학, 페혁 등의 공업이 활발하고 철도와 도로, 항공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70만명으로 경쟁 후보지인 여수(30만명), 모로코 탐헤르(47만명)에 비해 많고 현지에 한국 기업이 세운 공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3개 경쟁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폴란드는 2012박람회 주제를 '세계 경제에서의 여가문화'로 정하고 박람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에 속한 폴란드는 유럽내 36개 BIE회원국들의 표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실사된 모로코 실사를 지켜본 우리 정부는 마지막 경쟁 상대인 폴란드 실사 역시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로코에 비해 유치 역량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보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pk@korea.com



우리정치 수준은 언제나 높아질까?!

분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삼복아파트
105동 402호
계약자명 박귀덕
상기 계약서를 분실 공고함.

제권판결

사건 2007카공 10
신청인 김동암
서울 미동 1019 광동신안아파트 107-503
아래복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1. 23. 공시최고를 하였는데,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 5. 3. 10: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종 류: 자기 앞수표
- 번 호: 20132555 ~ 20132557
- 금 액: 각금 100,000,000원(3매)
- 번 호: 08630162, 08630164 ~ 66
- 금 액: 각금 1,000,000원(4매)
- 발 행 일: 2006년 9월 14일
- 발 행 인: 복지증명증정부

2007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상덕

제권판결

사건 2007카공 15
신청인 정정화
서울 마포구 청仙境 414 청운스위트 101-207
아래복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1. 23. 공시최고를 하였는데,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 5. 3. 10: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종 류: 자기 앞수표
- 번 호: 03432219
- 금 액: 각금 40,000,000원
- 발 행 일: 2006년 12월 14일
- 발 행 인: (주)신안개발

2007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상덕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운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계재해 드리겠습니다.

• 전 품:(062)227-9600, 220-0524, 0525
• FAX: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SONY의 모든 것

www.119accessories.co.kr
신광주전시판매장 (062)522-2000

병원임대

- 월계동 우리은행 4거리 60m 대로변
- 병원 인테리어 시설장비 완비
- 부과·생화·알부·기기장비·화과·최적
- 임대조건: 상담후 결정
- (062) 974-3575
016-612-550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과 같이 광고하고 아래 본문의 언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관에 신고하거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어서 이를 하시기 바이며, 민원 광고기기내에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본으로 간주하여 이를 계정하였음을 광고합니다.

1. 본문의 위치 및 짐소

구	읍·면·동	지·번	주	층	지·층	면적	기수	비고
광산구	우산동	602-3	1	1	1	155.93	12	주거

2. 본문의 기수: 3기

3. 기장사유, 개장후 인차장소 및 기간

가. 계정사유: 광로2-9호선(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공사
나. 인차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100-2 제2시립묘지 영락공원 남길단
다. 인차기간: 2007. 5. 9 ~ 2007. 7. 5 (20일간)

4. 종고기간: 2007. 5. 9 ~ 2007. 7. 5 (20일간)

5. 개장방법: 가. 유역분류: 광고기간 만료후 관계법에 따라 광고자 일의 개장
나. 유역분류: 광고기간 만료후 관계법에 따라 광고자 일의 개장

6. 신고처: 광주광역시청 도로과 (613-4768)

7. 신고지번의 주가 무연본으로 대장에는 (사업자구내) 본 광고로 같은함
8. 기타 문의사항은 신고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15일
광주광역시장

제권판결

사건 2007카공 15
신청인 정정화
서울 미동 1019 광동신안아파트 107-503
아래복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1. 23. 공시최고를 하였는데,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 5. 3. 10: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종 류: 자기 앞수표
- 번 호: 03432219
- 금 액: 각금 40,000,000원
- 발 행 일: 2006년 12월 14일
- 발 행 인: (주)신안개발

2007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상덕

제권판결

사건 2007카공 15
신청인 정정화
서울 미동 1019 광동신안아파트 107-503
아래복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1. 23. 공시최고를 하였는데,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 5. 3. 10: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종 류: 자기 앞수표
- 번 호: 03432219
- 금 액: 각금 40,000,000원
- 발 행 일: 2006년 12월 14일
- 발 행 인: (주)신안개발

2007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상덕

상용근로자 비중 11년만에 최고·일용직은 9년만에 최저 수준

'일자리' 질 좋아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상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또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근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9년여만에 최저 기록이다.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양적인 면에서는 미흡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4

분기 취업자 수는 2천284만1천명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4천명 늘어났다. 이런 증가 규모는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 30만명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분기별로 2005년 1·4분기의 14만2천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4분기의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840만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36.8%를 차지했다. 지난 분기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1996년 1·4분기 37.3% 이후 가장 높다.

이는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한때 2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상용근로자들의 비중이 와

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516만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22.6%를 차지해 2004년 2·4분기의 2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용근로자(207만4천명)의 비중은 9.1%로 1998년 3·4분기의 8.8% 이후 가장 낮았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130만4천명)의 비중도 5.7%로 내려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6년 1·4분기 이후 최저였다. 자영업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7~28%로 30% 가까이 올라갔으나 올해 1·4분기에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등산 미사일기지 이전설

시민단체, 청원서 제출… 사실여부 관심집중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최근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 미사일 기지가 줄어질 것이다라는 '미사일 기지 이전설'이 제기되면서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25개 시민단체가 지난 9일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연대서명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방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14일 광주지역에서 발행하는 모 주간 신문이 보도함으로써 논란에 불을 당겼다.

그러나 광주시나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이전설에 대해 '금지 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도 "미사일 기지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미사일 기지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이전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사를 실은 언론을 상대로 정보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농업박람회' 2011년부터 국제행사로

전남도, 美·유럽 등 초청 농산물 수출 활로 모색

전남도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국제 규모의 농업박람회로 확대된다.

전남도는 올해 6회째인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매년 해외 관람객과 수출 바이어들이 늘고 있어 국제 농업박람회로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우선 4천500만 원을 들여 국제 농업박람회의 타당성과 규모에 관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앙 정부 승인과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실의 국제행사 유치 심사도 신청할 계획이다.

국제 농업박람회 개최가 확정될 경우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등 국산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모든 국가가 초청된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농산물 유통회사 및 기구 관계자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고, 유기농 협회와 소비조합 등과도 협조해 마스터 플랜</